

Autumn. Vol.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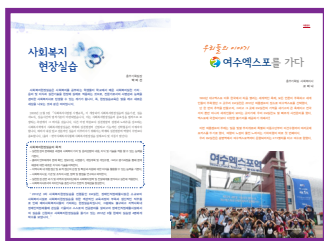
since 2002
소통과 도약의 **EM** 실천
Empowerment Society

희망 실천



Contents

Autumn. Vol.14



- 03 **여는글**
- 06 **실습교육이란**
- 07 **여름캠프 “여수해양세계엑스포”**
- 10 **금천&EM Style**
- 12 **New Family**
- 13 **운영위원회 활동보고**
- 14 **2012년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워크샵**
- 16 **희망회 “아줌마들의 수다”**
- 17 **“ 나 강의하는 여자야 ”**
- 18 **NEWS**
- 19 **예산보고**
- 20 **자원봉사 및 후원안내**

발행일 2012. 9. 24 발행인 김영환 발행처 EM실천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93-6 대륭테크노타운 6차 1004호
전화 02)875-9744,9733 팩스 02)875-9965 홈페이지 www.em21c.com

“ 「EM실천」은 Empowerment Society의 줄임말로 개인의 역량강화, 조직의 역량강화, 사회의 역량강화를 통해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동반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다시 시작하며..

디자인팀장 | 이진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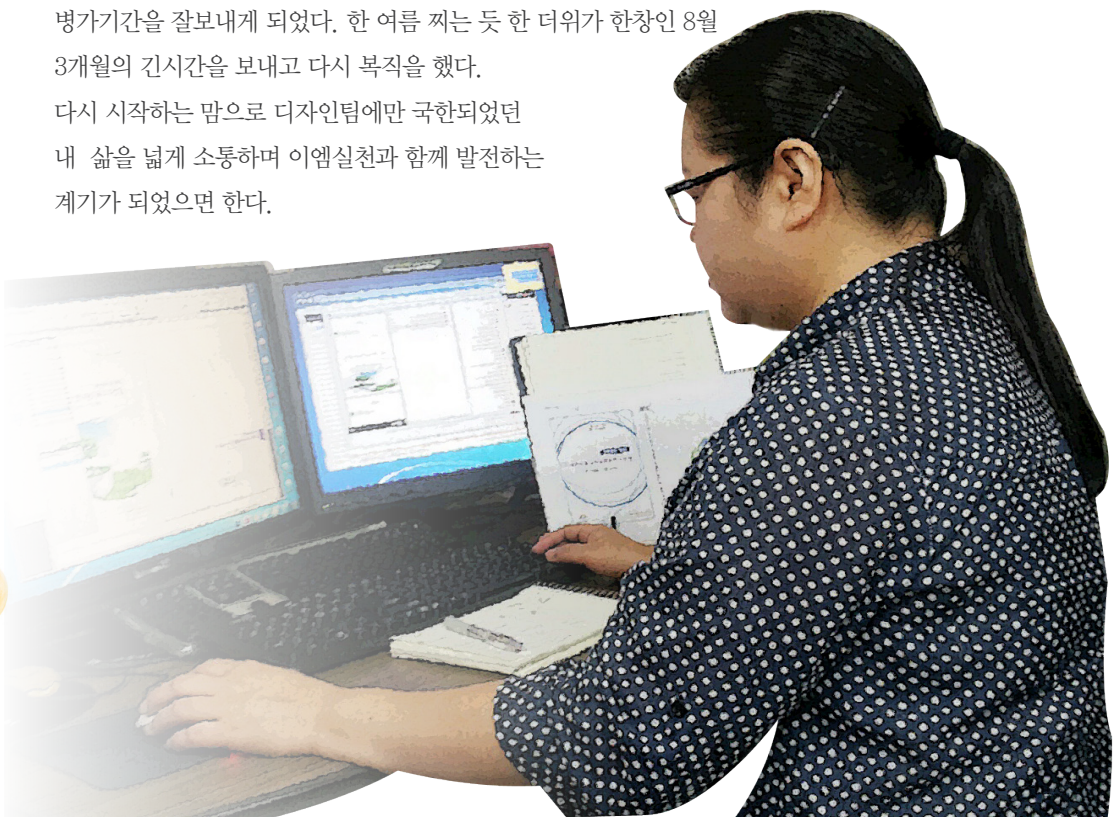
디자인팀 팀장으로 이एम에서 함께한지가 4년이 되었다.

디자이너로만 생각하고 나의 업무만 생각하고 생활해오며 소속감도 무뎌지고 초심도 잃어가고 있을 때 쯤 갑자기 나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다. 지난 4월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암판정을 받았고, 나에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망연자실하고 있었다.

급하게 입원해 수술을 기다렸다. 수술 당일 의외로 담담하게 수술실로 향했고 수술은 잘 끝났다. 수술후 입원하는 동안 염증반응을 철저히 체크해야한다고 하루에도 7번씩 채혈을 하게되었고 더 이상 핏줄이 안잡힌다고 간호사들이 어려워들했다. 그와중에 우리 EМ실천 식구들이 차례차례 병문안을 와주었고 힘든시기에 입원실에서 보는 EМ실천 식구들은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이렇게 동료애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법인식구들도 정성을 모아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다. 회사에서 배려해주어 병가기간을 잘보내게 되었다. 한 여름 찌는 듯 한 더위가 한창인 8월 3개월의 긴시간을 보내고 다시 복직을 했다.

다시 시작하는 맘으로 디자인팀에만 국한되었던 내 삶을 넓게 소통하며 이एम실천과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행복한 노후의 준비



우편발송부 | 홍 민 성

나는 3년 반쯤 전에 사회복지사님의 소개로 EM실천에 입사하게 되었다.

지금은 51세! 그 전에는 토목공학을 전공하여 시공현장에서 일해보기도 했지만 정신분열증에 걸려 직장을 잃고 투병생활을 해왔다. 상태가 호전되어 이제야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한자를 다시 공부하게 된 계기는 EM실천에서 동아리 모임의 한자교실 회원을 모집하기 때문이었다. 고등학교 때 국어를 좋아했고 한자에 관심이 있어서 나는 한자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매주 한 번씩 모여 한자를 공부했다. 일을 하면서 공부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시험을 치고 틀린 한자를 다시 써가며 멈춰버린 나의 뇌기능을 재생해 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면 박미선 선생님께서 주신 한자를 째짤이 공부했다. 다시 생각해 봐도 학창시절에 국어를 좋아해서 열심히 공부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공부하던 중 박미선 선생님께서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을 보자고 제안하셨다. 동아리회원 모두가 찬성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였다. 중급을 신청하고 수험표를 내고 시험날을 기다렸다.

시험보는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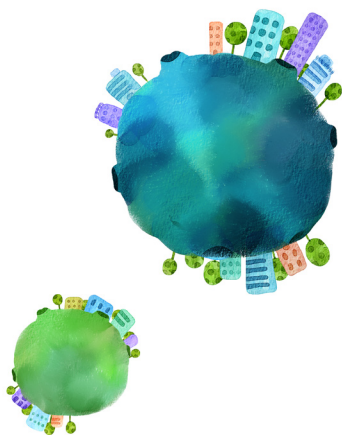
시험보기 두시간 전에 시험장에 도착했다. 가슴이 떨려왔다.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이백문항이 넘었다. 다행히 아는 한자가 많이 나왔다. 그 후 4주 후 쯤 6월 28일에 시험결과가 나왔다.

5급에 도전했던 난 뜻밖에도 '국가공인자격인 3급'에 합격을 했다. 이 모든 공을 성실히 지도해주신 박미선 선생님께 돌린다. 이 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내년 2월에 보는 자격증시험 때 2급에 도전할 것이다.

나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한다. 1급!!

이후 내가 이곳 EM실천을 떠나 행복한 노년에 유용한 자격이 될 것 같다.





복지현장 속에서

실습생 | 문 승 복

사람마다 다르지만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살아오다 사회복지분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마흔아홉 공부하기엔 늦은 나이 잘 할 수 있을까 망설여지도 했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벌써 삼년이 지나 2학기 방학이다. 기쁨 반 두려움 반이다. 제일 염려했던 현장실습을 하기 때문이다. 이제 네 사람이 한 조로 EM장애인 작업장과 연결되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 앞에 있는 장애나 두려움의 벽은 넘고 보면 장애나 벽이 아닌데 생각이라는 너울 앞에 두려워한 것뿐이라는 목사님 말씀이 불현듯 생각나 염려스러운 마음을 다잡았다.

EM작업장에 처음 방문하여 작업 중인 장애인들을 만나고 함께 작업하면서 마음으로 다가가니 다들 쉽게 마음을 열고 다가와 주어 기뻐다. 이곳에 와보니 장애를 딛고 작업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회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움이 크게 다가왔다. 나 주변에 있는 장애로 어렵게 살아가는 여러 명의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 한 번도 그분들께 이런 시설들을 안내해 주지 못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런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장애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이 강하며 경제성장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국가나 사회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 안타깝게 느껴진다. 지금 대선 정국이다 모두들 하나 같이 복지 복지를 외친다.

앞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분야가 계속 확대되어진다고들 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누리게 될지는 의문이 간다. 주변을 돌아 볼 때마다 그동안 보지 못한 부분들이 눈에 속속 들어온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눈높이에서 마음을 함께하며 살아가는 세상 모두가 꿈꾸지만 현실은 매우 높기만 한데 나의 배움 역시 얼마나 사회에 기여할지 마음이 저절로 숙연해진다.

끝으로 이번 실습기간 동안 장애인 작업장, 그룹 홈, 사회복지시설 등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기 힘든 여러 분야를 현장에서 두루 체험케 해준 EM실천과 실습지도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사회복지 현장실습이란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사회복지실천 가치·윤리 및 지식과 실천기술을 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것으로, 전문가로서의 사명감과 능력을 겸비한 사회복지사로 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즉, 현장실습교육은 알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나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2008년 11월 5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실습기관, 실습지도자, 실습시간의 법적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중요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갖습니다. 다른 어떤 학문보다 실천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강조하는 사회복지학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은 학계와 실천현장의 긴밀하고 기능적인 산학협동이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내실 있고 전문적인 실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계와 실천현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현장실습 실태조사 및 지침서 발간사)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목적

- 실천현장의 문제해결 과정에 사회복지 가치 및 윤리강령의 내용, 지식 및 기술을 적용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클라이언트체계의 문제 확인, 정보수집, 사정평가, 개입계획 및 개입수행, 그리고 평가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터득한다.
- 지역사회 내 위험집단 및 표적 집단의 강점 및 특성과 자원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사회복지시설, 기관 및 조직의 사명, 정책 및 행정을 연구하고 파악한다.
- 실천현장 관련 국가 및 지역(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및 전달체계를 분석하고 실천에 적용한다.
-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아인식을 증진시키고 전문직 정체감을 형성한다.

“ 2012년 3차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진행중인 EM실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소규모의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위한 객관적인 교육과정의 부족과 생산적인 직무들로 인해 예비사회복지사들이 기피하는 현장실습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내 장애인직업재활에 관심을 기울이고 스스로의 전공분야를 살피고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EM실천에 실습을 신청하고 사회복지현장을 몸으로 맘으로 즐기고 있는 2012년 8월 현재의 실습생 4명(박창열, 문승복, 하수곤, 이성한)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

우리들의 이야기



여수엑스포를 가다

충무기획팀 사회복지사 | 고 미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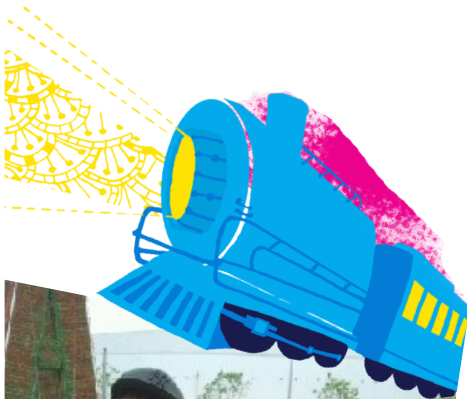
1993년 대구엑스포 이후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적인 축제, 모든 언론이 주목하고 세계인들이 주목했던 그 곳. 우리 EM실천은 2012년 여름캠프의 장소로 여수엑스포를 선택했다.

단 한 번의 추억을 만들고자, 그리고 그 곳에 EM실천의 기억을 새기고자 큰 축제이고 전국 각지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우리 EM실천도 발 빠르게 사전준비를 했다. 엑스포에 국한되기보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 여름캠프의 주제는 일곱 빛깔 무지개로써 특별히 이동수단부터 미션수행까지 여러 곳에 포커스를 두기로 했다. 여행의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 기차여행이 바로 첫 번째이다.

우리 EM실천은 광명역에서 여수엑스포역까지 운행되어지는 KTX열차를 타고 여수로 향했다.





세 네 시간 남짓 달렸을까?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여수역에 도착해있었고, 짐을 풀기 위해 숙소로 향했다. 어느 한적한 동네의 교회에서 짐을 풀자마자 다시 조별로 모였다. 조별로 일정금액의 용돈을 지급받고, 교회로부터 각각의 장소에 가서 인증 사진 찍기!! 그 후 다시 엑스포 정문에서 모이는 길로~ 이것이 바로 엑스포에서의 첫 번째 미션이었다. 한 시간, 두 시간이 지나고 엑스포 정문에는 한 조씩 모이기 시작했다. 벌써 지친 기색이 역력한 근로회원들과 직원들을 위해 STAFF팀에서 맛있~는 저녁식사장소를 섭외했다. 조별로 테이블에 둘러앉아 맛있는 버섯불고기를 먹고 잠시 담소의 시간을 나눴다. 피곤한 듯 피곤하지 않은 듯.. 다들 낮선 곳에서 지쳐있었지만, 여수에서의 첫 날밤을 이렇게 조용히 보낼 수는 없었기에 어느 조의 미션장소였던 오동도를 한 번 더 방문하기로 했다. 어두운 밤길을 서로의 그림자를 따라 걷고 또 걸으며 서로에게 의지하던 찰나, 드디어 오동도에 도착을 했다~ 각 조별로 미션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여수밤바다를 보며 낭만의 시간을 가졌다.

여수에서의 둘째 날이 밝았다.

가볍게 아침식사를 끝내고 우리는 최소의 짐과 경비만을 챙겨 여수엑스포로 향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데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인원이 엑스포장 내에 있었다.

“미션수행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조가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이 한마디는 근로회원의 동기부여로 충분했고, 모두들 의욕에 차 있었다. 입장을 하자마자 떠나 할 것 없이 뛰어 들어가 곳곳으로 흩어져 순식간에 보이지 않았다. 한 시간, 두 시간이 지나고 도착한 문자 한 통... 사진이었다. 동일한 배경으로 조원들의 사진을 찍어 답장을 보내는 것이 바로 미션과제!! 선착순이었기에 아마도 문자를 확인한 모든 조원들은 배경사진의 장소가 어디인지 찾아 헤매었을 것이다.



잊고 있었던 미션과제 중 한 가지

외국인과의 사진촬영,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의 사진촬영

박미선팀장님이 속해있던 7조는 핸드폰이 불이 날 정도로 외국인과의,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의 사진이 속속 올라오고 있었다. 점심시간 이후 잠깐의 모임을 가졌고, 이내 다시 흩어져 조마다 박람회장을 방문했다.

미션!! 원장님을 찾아라~~

국제관 어딘가에 앉아계실 원장님을 찾아 함께 사진을 찍고 전송하기 힌트는 2008년 월드컵의 축구라는 데... 어려웠던 미션인 만큼 원장님이 국제관 어딘가에서 한참동안을 기다렸다는 후문이...

여수엑스포의 가장 인기있는 아쿠아리움

사전에 예약하여 시간에 맞춰 입장하였다. 기대감은 최고에 달했으며 아쿠아리움은 우리의 기대감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수많은 물고기와 돌고래, 직접 사진촬영도 가능한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있었다. 아마 지금껏 다녀본 곳 중에 가장 많은 사진을 찍었으리라.

여수엑스포 최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빅오쇼~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인원이 빅오쇼를 보기위해 몰려들었고 각 조마다 조원을 챙겨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한 시간 남짓 기다렸을까? 분수쇼가 시작됐고 색색의 물줄기가 하늘을 향해 쭉쭉 뻗었다. 이 곳 저 곳에서 감탄사가 연발했고 일 분 일 초도 눈을 땔 수가 없었다. 그렇게 단 한 번의 추억을, 여수의 마지막 밤을 우리는 그 곳에서 멋진 빅오쇼와 함께 막을 내렸다.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고 부스스한 모습의 근로회원과 직원들이 보였다. 짐을 모두 챙긴 후 미션수행의 1, 2, 3등을 발표 및 시상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가장 큰 관전은 외국인과의 사진촬영,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의 사진촬영이었다. 두근두근두근... 1등은 과연??.... 박미선 조용철 강성림이 최고의 활약을 보였던 7조!!!!!! 외국인과 가장 많은 사진촬영을 했던 7조에게 KTX승차권이 주어졌다.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고, 여기저기에서 탄성과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들렸다. 또한 근로사와 직원 모두 수고했다는 눈빛교환을 했다. 기차역에 도착한 우리는 1등을 한 7조를 떠나보내며 무궁화호 열차를 기다렸다. 기다림의 시간은 한 컷 한 컷 찍은 사진을 보며 달랬고, 이후 열차에 몸을 실고 서울로 향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두에게 특별한 단 하나의 추억이 되었길...



금천 N

S mall 소규모 복지 style

- 장애인복지시설 15개소 중 5인 미만 시설이 5개소가 해당
- 장애인복지시설 15개소 중 공동생활가정이 6개소 해당
- 타지역에 비해 복지시설 수가 부족
(예. 강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총 34개소)

t ry 복지실천을 위한 노력 style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설(금천구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 통통희망나래복지(사회복지안전망구축을 위한 노력)

y OU&I 민관협력 sty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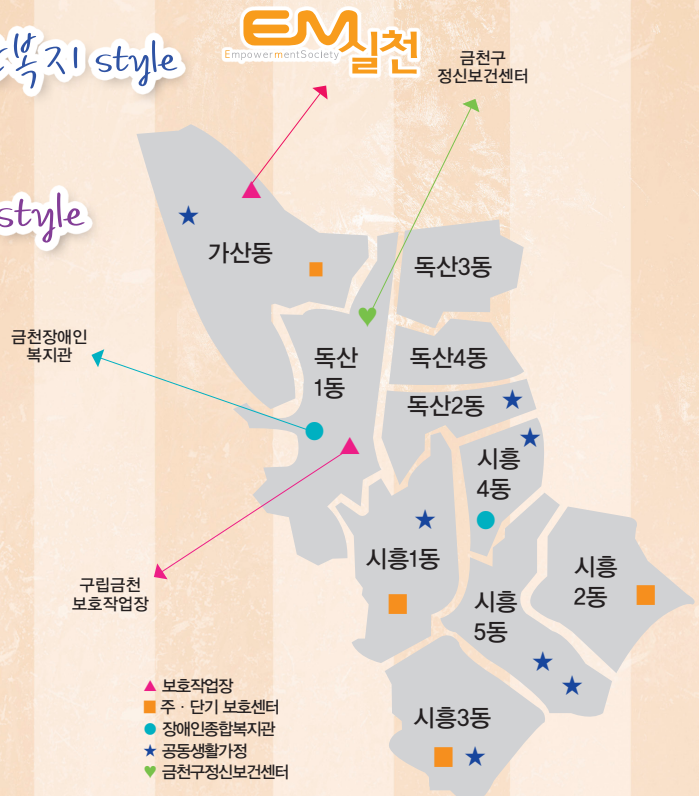
- 민관이 협력하여 장애인복지를 위한 노력을 실천
- 직업재활시설에 임가공 업체 연결 등

l imited → unlimited 무한복지 style

- 제한적 복지에서 무한한 복지서비스로의 발전

e xciting 즐거운 복지 sty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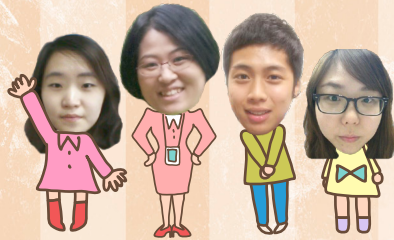
- 모든 사람에게 흥미로운 복지 구현



EM Style



위원장님



총무기획팀



직업재활팀



디자인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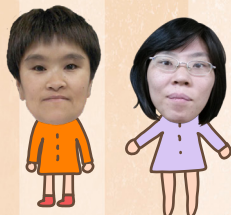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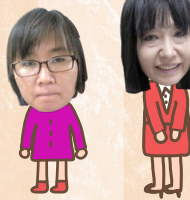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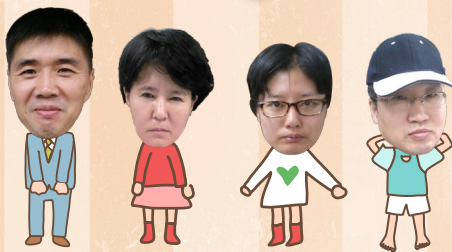
인사팀



복사팀



현수막팀



유편발송팀

신고합니다.



일자리창출사업으로 EM실천의 새식구가 된 직원들을 소개합니다.



디자이너 | 강인해

저는 일산직업능력개발원 교사분들을 통해서 EM실천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쇄분야에 관심이 없다가 1년 6개월을 배우다보니 이런 분야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분야는 처음하는 일이라서 긴장되고 당황스러웠는데 차츰차츰 제가 배워서 뭔가를 만들 수 있고, 나중에는 이것들이 능숙하게 되서 배운 것을 잘 활용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조금이나마 EM실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편집보조 | 김진경

안녕하세요 저는 em실천에 갓 입사한 열정과 밝은 성격을 가진 김진경 이라고 합니다

청각장애를 가졌지만 밝은 성격과 활발함을 가졌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 잘 부탁드립니다~



디자이너 | 강정식

안녕하십니까?

EM실천 디자인팀의 8월 1일에 입사한 강정식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 입사하여 EM실천에서 일을 한지도 어느덧 한달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속에서 많이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점차 익숙해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EM실천에서 제 포부는 일감이 아닌 일꾼이 되기를 최선과 노력을 할 것 입니다.

활발한 운영위원회

활동보고

3차

일 시 | 2012. 7. 12(목)

참여자 | 이용표, 강태섭, 장재원, 최병태, 박태준, 김영환, 박미선

회의내용

- 1) 상반기 운영실적보고
 - 일자리창출사업 선정
 - 직업재활실적
 - 상반기매출현황중 공공기관 현황보고
- 2) 법인과 함께하는 미션N비전에 대한 보고
 - 미션 : 희망실천 EM실천
 - 비전 : 논의중
- 3) 일곱빛깔무지개 여수엑스포 '여름캠프' 보고
 - 2012년 여름캠프, 2012.7.5-7
- 4) 인사이동보고

4차

일 시 | 2012. 9. 17(월)

참여자 | 이용표, 강태섭, 최병태, 오동록, 최송근, 김영환, 박미선, 임성수

회의내용

〈보고안건〉

- 1안. 2012년 하반기 운영현황 보고
 1. 금천구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 보고
 2. 2012년 하반기 사업계획 보고
- 2안.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금천지부 확장
 - : 금천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확정
- 3안. 프로포절 및 기능보강사업
 - : 서울시 공동모금회 장비보강사업 제출 '명함인쇄 및 제단기'
 - : 쇼핑백사업 타공기 마련예정
- 4안.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워크샵
 - : 2012.8.24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 5안.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건
 1. 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지원
 2.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홈페이지 개편 및 온라인쇼핑몰 구축
- 6안. 서울남부교육지원청 장애성인 평생교육 휴머니즘 프로젝트 'enjoy pop'

〈심의안건〉

- 1안. 신규운영위원 위촉 건
 - 2안. 공동운영위원회 운영 건
 - 3안. 차량규정(안) 건
 - 4안. 장기근속자 포상제도 도입건
 - 5안. 하반기 인력채용건
 - 6안. 기타안건
- 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갑작스런 태풍으로 굳은 날씨에도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마음, 한 곳을 향한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2012년 8월 24일 금요일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의 모든 직원들이 모였던 날,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법인 워크샵과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오전 워크샵의 주제는 법인의 미션과 비전에 관한 내용으로, 일주일~한 달 이전부터 준비해온 내용을 토대로 시설별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되었고,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못했으리라 짐작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법인의 미션과 비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공유할 수 있어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열두개의 시설

시설별로 소수 혹은 대다수의 직원들이 참석한 이 날, 점심식사가 끝난 후 명랑체육대회(운동회)가 진행되었다.





총 4팀으로 나누어졌고 각 팀별로 25명 정도가 배치되었다.

그 중 우리 EM실천은 3팀을 제외한 다른 팀에 골고루 배치되었고, EM실천의 대표이자 핵심적인 김영환 원장님과 총무기획팀 박미선선임팀장님이 같은 팀으로 배치되어 그 어느팀 보 다도 막강했다.

시작초반 함성소리가 하늘을 찌를듯하여 응원점수 200점을 획득한 2팀은 아주 좋은 출발을 했고, 직업재활팀 양현모선임사회복지사가 속해있는 4팀이 2등으로 100점을 가져갔다.

반대로 디자인팀 이진숙팀장님, 총무기획팀의 고미나가 속해있는 1팀은 가장 낮은 응원점수를 받아 안타까움을 자아냈다.(필자는 4팀에 속해있었다는 점 $\pi\pi\pi$)

약 한 시간 반 가량 외부의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다소 서먹할 수도 있었던 분위기를 즐거움이 가득한 분위기로 이끌어냈다.

분명 레크레이션 동안에는 2팀이 우세한 성적을 보였고, 1팀은 50점 차이로 꼴등을 면하지 못하는 듯 했다.

하지만 체육대회의 반전이였을까?

직원들의 개인전과 복식으로 이루어진 팔씨름, 배드민턴, 탁구, 축구에서 1팀은 남직원들이 참여한 축구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여직원들의 힘을 발휘했고, 그 빛을 바랬다.

여느 팀보다도 우세했던 2팀을 제치고 팔씨름, 배드민턴, 탁구에서 모두 승리를 이끌어내어 1팀이 최종 우승을 하였다.





아줌마들의 수다

<등장인물>

아줌마1 : 충무기획김경 박미선
아줌마2 : 김영기님 어머니
아줌마3 : 한선택님 어머니
만년 언니 : 한금주님 언니

애기엄마 : 김경일님 동생
한자샘 : 최현기님 어머니
청일점 : 박진희님 사촌동생
몸매짱 : 황간희님 오빠
관속일주인 : 김영호님 어머니

때 : 2012년 8월 29일

장소 : EM빌딩 모퉁에서

안녕하세요. EM빌딩 가족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한선택님의 가족분도 참
석을 하셨습니다. 환영의 박수~~짝짝짝



때는 한여름의 끝자락에서 아줌마3과 한자샘이 제일 먼저 왔다. 아줌마3과
한자샘은 조용한 성격으로 특별한 말이 없었다. 애기엄마와 몸매짱, 아줌마
2가 모임에 합류하면서 수다는 시작되었다. 아줌마1의 주관하에 수다는 시
작, 아직 다들 모르는 사이로 먼저 자기소개를 하였다.
주제의 핵심은 최근 한자시험으로 노년을 준비중인 몸매짱님의 가족이야기,
한자샘도 한자자격증을 취득한 몸매짱의 가족의 능력에 칭찬을 해주었다.



아줌마1 : 무더운 여
름 어떻게 지내셨나요

만년언니 : 여수엑스포는 어땠나요?
우리 금주는 재미가 없다고 하던
데... 사진으로 보선 재미 있어 보
이던데...

아줌마1 : 지각생 과수원주인님은 태풍
으로 과수피해는 어떠신지?
과수원주인 : 작년엔 우박피해로 보상
이 있었으나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청일점, 몸매짱 : 경청중

아줌마2 : 저도 사이판에
떨집에 갈 때 바디랭기쥬
로 다 통하더라고요.



아줌마1 : 외국인과 사진찍
기등의 미션수행이 있었는데
다들 능숙하게 미션을 수행
했습니다.



한자샘 : 저도 한자시험에 도전
했었는데 쉬운 일이 아닌데 참
대단한 일을 해내셨네요.

나 강의하는 여자야~

우편발송부 | 황 찬 희



2012년 8월 31일 금요일

은평구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재활증진 및 기관소개”에 대한 강의를 맡아 하게되었다. 약 1시간의 시간이 주어졌고, 여러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이야기를 해 보는 나의 생애의 이야기이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발표였다. 처음 팀장님께 강의를 맡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때 가슴이 설레이기도 하고 과거에 대한 가슴아픈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였다.

“내가 정신장애인으로 여러 사람 앞에 서는구나” 하는 쓰라리기도 기쁘기도 한 묘한 기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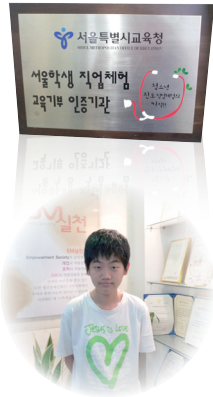
원고 준비를 하며 대충 지나가려던 나의 발병 동기가 문제가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원고를 넘기자 담당 사회복지사선생님이 좀 더 자세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며 한참을 끙끙거렸다. 쓰자면 한이 없는 애기였지만 그것을 줄이고 줄여 A4용지에 3장 가량으로 스토리를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컴퓨터를 들여다 보고 싶지도 않아 뒷말을 대충 정리하고 원고를 선생님께 넘겼다. 또 다시 되돌려 받았다. 뭔가 빠진듯한게 문맥을 다시 정리하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다시 컴퓨터 앞에 마음을 다스리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이미 써진 원고를 다듬기 시작했다. 아프게 써내려간 원고가 이제 눈에 잘 들어왔다.

드디어 강의하는날! 15명이 순수한 눈망울이 나를 보고 있었다. 그들은 내 친구이자 동료이고 동반자들이었는데 재활의지가 없다는 은평정신건강증진센터 담당선생님의 말씀이 있었다. 간단한 소개 이후 나는 차분히 원고를 읽어내려갔고 끝나고 나서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다.

“EM실천이 어디에 있는겁니까?” 제일 첫 번째 질문이었다. “금천구 가산동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너무 멀네..” 라고 했다, 나는 “저도 이렇게 잘 다니고 있는데요? 마음만 있으면 거리는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라고 말을 받았다. 그렇게 시작된 그 자리는 30분간 질의문답으로 진행되었다. 재활에 대한 의지들은 있어도 막상 부딪히기가 겁이 나는 것 같았다. 그 중 한 용기있는 철이라는 청년이 말했다. “여기서 571번 타면 가산동 가요.” 그는 수급자가 아니어서 일반 직장에 취업하려고 한다 했다. “그것도 좋죠 하지만 위밍업을 할 시간도 필요한 것 같네요” 라고 말해줬다.

그렇게 우리는 한마음이 되어 짧은 시간을 보냈다. 속으로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불러일으켜 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바램을 해보며 마지막으로 친구들의 배웅에 발걸음을 옮겼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천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이상준입니다

무뎠던 2012년 여름, 두달동안 일을 했더니 재미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잘못해서 벅벅거리다가 한달이 지나니 능숙해 지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쉬웠던 일은 연필작업과 편지봉투에 공문넣기였습니다. 어려운 일은 쇼퍼백만들기였습니다.

얼마나 더웠던지 집에 돌아가면 쓰러질 뻔 한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뒤 다시 이곳 em실천에 오고 싶습니다.

두달동안 가르쳐주고 관심주신 박수현사회복지사 선생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고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장애학생 지원사업 참여자
미소천사 이상준

저는 금천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최민우입니다.

처음 EM실천을 방문했을 때는 나이 많은 어른들이 많아서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EM실천에서 근무하시는 어른들 모두 다들 친절하고 다정다감 했습니다. 가족처럼 대해주시고 맛있는 주스도 사주시고 과자도 사주시고 어려운 일이 많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선생님 잘 설명해주셨으나, 제대로 되지 않아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EM실천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성인이 된 후 달라진 제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안녕히 ^^ 최민우 올림

3분기 우리들의 활동보고

- 11 서울시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중사자워크샵 (김영환원장, 박미선팀장, 고미나사회복지사)
- 7/ 17-18 문성중학교 2학년 직장체험 (신수민외 1명)
- 18-19 서울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상품 전시회
- 20 PEPS교육을 위한 정신보건전문가 워크숍 (양현모사회복지사)
- 20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심사면접, 프레젠테이션 (임성수팀장)
- 20-22 광진보호작업장 쇼퍼백사업 벤치마킹 (고미나사회복지사)
- 8/ 21 논산정신요양원 직업재활세미나 강의 (김영환원장)
- 23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학위수여 (김영환 원장)
- 24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워크샵 (전직원)
- 30 사회복지사보수교육 (김영환원장, 박미선팀장)
- 31 은평구정신건강증진센터 직업재활강의 (황찬희 우편발송부 사원)
- 3~7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 (정현우)
- 9/ 17 4차 운영위원회
- 18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시스템교육 (고미나사회복지사)
- 27 웨딩촬영 (직업재활팀 양현모사회복지사)

기관제방

2012.7.20 송파사회복지시설
2012.8.9 강남장애인복지관
2012.8.27 한울사회서비스사업단

예산보고

2012년 하반기 임시이사회를 통해 EM실천은 추경(안)보고가 있었습니다.
추경예산내역은 수익사업부문, 외부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부문 등의 예산
변경이 필요로 인해 조정, 승인 되었습니다.

(단위 : 천원)

수입			지출		
항목	2012년 예산(안)	2012년 추경예산(안)	항목	2012년 예산(안)	2012년 추경예산(안)
계	2,138,182	2,290,814	계	2,138,182	2,290,814
수익사업	1,510,924	1,635,317	사무비	421,908	440,667
보조금	187,191	183,190	재산조성비	109,000	109,000
특별지원사업	67,359	94,359	사업비	1,594,256	1,728,129
법인전입금	4,560	4,800	잡지출	12,035	12,035
이월금	360,348	360,348			
잡수입	780	780			



2012년 EM실천과 함께

나눔·소통·도약할 소중한 분들을 모십니다

나눔의 EM실천

나눔은 내것은 주고 받는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주는 것보다 받는 기쁨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이런 기쁨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소통과 도약의 통로인 EM실천에 오세요.

소통 1. EM실천에 일거리 제공(인쇄, 복사, 현수막, 우편발송)

소통 2. 저금통 나눔

소통 3. EM실천 직접후원

(후원계좌 : 예금주 이엠실천)

- 하나은행 577-910004-99104
- 우리은행 1005-202-023861
- 농협 301-0104-7345-41

소통 4. 봉사나눔(VMS인증서 발행)

- 여가프로그램지원
- 교육프로그램지원
- 직무지도 지원



Thank you

〈자원봉사자〉

신수민 윤지원 정유진 정유림 김지호 김지나 이선영 서영준 최민우

〈후원자〉

- 대한적십자사 휴롬(과일녹즙기) 후원
- 서울시 사랑의 PC나눔 무상교체